



제주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도청 탑라홀에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승진·전보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82명과 신규 임용 공무원 153명 등 총 235명에게 임용장이 수여됐다. 이번 정기인사 규모는 직급 승진자 161명을 포함해 부서 전보와 신규 발령 등 총 878명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용장을 전달하며 "임용장은 70만 도민을 대표해 드리는 것으로, 그 책임과 기대를 높 마음에 새겨달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해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권 도의원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수상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약속대상 좋은조례는 입법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의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여되는 상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 도유



지 해안사구를 행정재산으로 지정해 보전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태성 씨 27년간 헌혈 500회 실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원장 김선희)은 지난 10일 양태성(67)씨가 헌혈의집 한라센터에서 500회째 헌혈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씨는 1999년 5월 첫 헌혈에 참여한 이후 약 27년 간 한결같이 헌혈을 이어왔다. 아내의 수술로 혈액이 필요했던 당시, 병원 앞에 마련된 헌혈 차량을 마주한 것이 헌혈을 시작한 계기가 됐다.

양 씨는 "헌혈은 나와 타인의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활동이며, 돈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봉



사"라며 "더 많은 이들이 헌혈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선수들 베트남 태권도 교류

제주한마음장애인스포츠센터(대표 강동균)는 지난 13~17일 사회복지법인 정혜재활원 소속 발달장애인 선수 6명을 포함한 한국 선수단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 LMS 스포츠아카데미에서 '2026 베트남 LMS 장애인태권도 페스티벌'을 개최됐다. 이날 한국 선수단은 베트남 선수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도지체장애인협 신년인사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한태만)는 지난 16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산하 지회 및 시설 임직원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준비된 다과를 나누며 지난해의 노고를 위로하고, 올해를 함께 걸어갈 동료로서의 깊은 유대감을 확인했다.



진흥기업 제주대병원 발전기금 1억 기탁

진흥기업(주)(대표 이철수)은 최근 지역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제주대병원에 1억원을 기탁했다.

이철수 대표는 "제주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도약하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귀포시 소재 전기분야 전문기업인 진흥기업은 올해로 30년째를 맞은 전기분야 강소기업이다. 지난해 5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 쌀 1t를 기부하는 등 나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위너파크골프 제주 프로선수단 창단

위너파크골프 제주 프로선수단(대표 박영환)은 지난 17일 사단법인 더사람 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날 이화금 선수단장을 비롯해 고경생·고동준·길봉석·김정빈·나병선·나성호·박계선·서현숙·양창오 선수가 선수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영환 대표는 "앞으로 선수단이 실력과 지식을 겸비한 위너파크의 가족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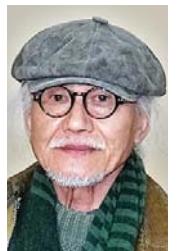
범방위 장애인시설 사랑나눔 봉사활동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회장 고영두) 범죄예방분과 서부지구(회장 허진)는 지난 13일 제주시 함덕리 소재 장애인생활시설인 아가의 집을 방문해 생활실 및 주변청소 등 봉사활동을 했다.

또한 이용자들의 생활실에 필요한 3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 등 위문물품을 전달했다.

돌문화공원 초대 명예원장에 백운철 씨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백운철(사진) 전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민관합동추진 기획단장을 제주돌문화공원 초대 명예 원장으로 위촉했다.



백 명예원장은 1970년대부터 제주의 자연미를 담은 나무와 돌을 수집하며 탐라목석원을 운영해왔다. 지난 1999년 소장품 3만여 점을 제주도(당시 북제주군)에 기증하며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기틀을 다져왔다. 특히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과정에서 민관합동추진기획단장을 역임하며 사업 추진에 기여했다.

백 명예원장은 공원 내 주요 전시 디자인과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1월 18일까지 2년이다.

제주민예총 신임 이사장에 송맹석 작가

제주민예총 신임 이사장에 송맹석(사진)작가가 선출됐다. 사단법인 제주민 예총은 지난 16일 제33차 정기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신임 송맹석 이사장은 탐라미술인협회를 중심으로 제주4·3미술제에 참여해 왔으며, 인권과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미술 활동을 이어온 작가다. 그는 탐라미술인협회장과 도립미술관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송 이사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제주민예총이 지난 30년 동안 쌓아온 예술적 성취를 돌아보는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예술의 역할과 실천 방식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회원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조직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적 실천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작가회의 신임 회장에 강봉수 시인

제주작가회의 신임 회장에 강봉수(사진) 시인이 선임됐다.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는 지난 17일 제주문화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선 신임 회장과 더불어 부회장에 문태준·김영란 시인, 사무처장에 부북정 동화작가를 각각 선출해 신임 집행부를 꾸몄다.

강봉수 신임 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글마실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마을의 인문사회와 생태환경 변화를 문학적으로 승화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강 신임 회장은 제주시 오라동 출신으로 1980년대 '신세대' 문학동인과 개인 시화전 등으로 작품 활동을 했으며 2011년 '문예춘추'로 등단했다. 2019년엔 아름다운 제주에 공모전(제주학연구센터)에서 시 '굴뚝'으로 대상을 받았다.

중국 황실 초대장!

중국 항주/상해 3박4일 매주(목)~(일) **1,490,000원**

노쇼핑/노음선/노팀 ※ 성인기준 4명 이상 출발 ※ 연휴기간(설명절/한국 연휴기간 등) 요금변동

poem tour 풋 업 투어

TEL. 064-757-4286

사진, 영상

▶ 여행사진 보는 법(QR코드 이용 안내)

- ① 스마트폰 카메라를 캐시오.
- ② 화면을 QR코드에 기끼이 비추면
- ③ 화면에 나타나는 인터넷 주소(링크)를 놀리주세요.
- ※ 사진과 여행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표

▶ 일정표 보는 법(QR코드 이용 안내)

- ① 스마트폰 카메라를 캐시오.
- ② 화면을 QR코드에 기끼이 비추면
- ③ 화면에 나타나는 인터넷 주소(링크)를 놀리주세요.
- ※ 일정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